

유기적인 목양에 대한 온전케 하는 훈련

2007년 1월 21일

메시지 2

다른 이들을 돌봄으로 돌봄을 받음

성경: 아 1:8, 눅15: 5-6, 고전9:14, 마 25:16, 29, 고후 9:6-7, 행 20:35하

I. 오늘날 주님의 회복의 필요는 사람들을 접촉하는 습관을 세우는 것이다. 다른 이들을 돌볼 때 당신이 돌봄을 받을 것이다—요 21:15-17, 아 1:8.

- A.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접촉하는 것은 당신을 기쁘게 만들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 B. 성경의 신성한 경제에 의하면 우리는 받기 원한다면 주어야 한다—잠 11:25.

II. 새로운 믿는 이들은 우리의 영광이며 기쁨이다—요 15:11, 눅 15:5-6, 빌 2:17.

- A.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요15:11.
- B.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눅15:5-6.
- C.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 126:5-6.
- D.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빌 2:17.

III.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고전 9:14.

- A.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9:9상.
- B.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요4:34.
- C. 우리가 복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교리적인 방식이 아닌 매우 체험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누린다.
- D.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창 20:17),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21:2).

IV.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마 25:29상.

- A.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요 15:2하.
- B.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마 25:16.
- C.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욥42:10.
- D. "흠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잠 11:24-26.

- E.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 8:9.
- F.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9:6),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10-11절).
- G.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나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왕상 17:13-14.

V.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후 9:7.

- A.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창14: 18-19.
- B.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47: 7-8상.
- C.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행20:35하.
- D.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눅6:38.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한 글: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서 사람들을 접촉하는 습관을 세우기 위한 필요

목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도처에 뿔뿔이 흩어져 있다. 우리는 목양이 사람들을 위한 우리의 관심에 의해 시작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요한복음 21장은 우리의 목양이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계시한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이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접촉하기를 갈망한다. 그분의 양무리를 목양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는 것만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당신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접촉한다면, 이것이 당신을 기쁘게 해 줄 것임을 나는 여러분에게 보장할 수 있는데, 이는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것은 목양이다. 나의 부담은 여러분을 분발시켜 오늘 주의 회복에서 여러분이 사람들을 접촉하기 위해 일어날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습관을 세워야 한다. 만일 여러분이 사람들을 접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만족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은 그분의 백성을 돌보기 위해 주님의 사랑에 빠져야 한다.

나는 여러분에게 모든 친지의 명단을 작성하라고 일깨워 주고 싶다. 여러분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알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명단을 작성해 보면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이 백 명이 넘는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당신은 이들의 이름들에 대해 기도하며 누구를 접촉해야 할지에 관해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 때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접촉할 때, 여러분은 그가 합당치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나의 체험에 따르면 어떤 접촉도 잘못된 것은 없다. 여러분이 낚은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도 합당치 못한 물고기가 아니다. 합당치 못한 것은 다만 당신이 사람들을 접촉하지 않는 것이다. (*활력 그룹의 훈련과 실행 94, 95쪽*)

다른 이들을 돌봄으로 돌봄을 받음

성경의 신성한 경제에 따르면, 받기 원한다면 주어야 한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물을 주면 우리 자신이 물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생명 안에 자라기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자라게 도와주어야 한다(잠 11:25). 다른 사람들을 생명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는다면 우리 자신이 성장할 것이다. 받는 길은 주는 것이며, 더 줄수록 더 받을 것이다(눅 6:38, 행 20:35).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믿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고 우리가 유용하지 않다는 말은 다 거짓이다. 우리는 우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유용하지 않다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우리는 "사탄아, 내게서 떠나라. 나는 무언가를 할 수 있다. 나에게는 무언가가 있다. 나는 주님의 손에 유용하다." 라고 말해야 한다. 우리는 느낌이나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것을 온 우주에 선포해야 한다. 우리가 모두 이것을 선포한다면, 우리의 상황 전체가 변할 것이다. 반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것도 없다고 말하며 아무 것도 못한다고 말할수록 우리의 유용함은 더욱 소멸될 것이다. 거짓말쟁이 사탄은 많은 거짓말쟁이를 낳으려고 교활하게 일하고 있다(요 8:44하). 사탄은 심지어 아내를 사용하여 자기 남편에게 쓸모없다고 말하게 하고, 남편을 이용하여 아내에게 동일하게 말하게 할 것이다. 사탄은 심지어 아이들을 이용하여 "집회에 그렇게 자주 가지 마세요. 교회에 무슨 도움이나 되겠어요?" 라고 말하게 한다. 우리는 거짓말에 대항하여 "나에게는 무언가가 있다. 나는 무언가를 할 수 있다." 라고 말해야 한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고 말할 때 우리는 가진 것을 잃는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무언가가 있다고 말할 때 우리가 가진 것은 증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물을 주고 그들을 돌보기를 힘써야 한다(*교회의 건축을 위해 열매를 맺고 목양하는 정상적인 길, 61-62쪽*)

새로운 믿는 이들이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 됨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주님은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신성한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 신성한 생명을 표현하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기쁨의 일—기쁜 생활이다. 많은 성도들은 그들이 한 사람을 삼일 하나님 안으로 침례 주었을 때 황홀경의 체험을 가졌다. 그들은 그들이 한 사람을 주님께 데려온 후에 주님의 기쁨이 그들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밤새도록 잠을 잘 잘 수 없었다고 간증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까지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나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고 말한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주님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되는 것을 언급하신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바울은 우리의 기쁨을 다시 언급한다. 우리의 기쁨은 무엇인가? 우리의 기쁨은 우리가 맺는 열매이다. 말씀의 이 두 부분은 관련되어 있다. 요한복음 15장11절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까지를 참조해야 한다.

우리의 기쁨이 무엇인가? 우리의 영광이 무엇인가?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다.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다. 요한복음 15장과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우리는 이들 두 단어, 영광과 즐거움을 소유한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에 의해 태어난 열매가 그의 영광이요 기쁨이었다.

주님이 오셔서 당신이 그분 앞에 설 때, 누가 당신과 함께 당신을 위해 설 것인가? 당신은 무엇을 말하겠는가? 당신이 결코 어떤 사람도 주님께 데려오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자. 이것은 당신이 어떤 열매도 맺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당신은 "주여, 당신의 달란트를 보소서. 당신의 달란트는 나의 호주머니에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지켰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분이 오실 때 우리가 주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영광이나 기쁨이 아니라, 우리에게 수치가 될 것이다(마 25:24-30). 나의 부담은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취한다면, 여러분은 새 사람, 곧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의 훈련과 실행 71-73쪽*).

복음의 진보는 그리스도를 살기 위한 요인임

빌립보서에 제시된 그리스도의 체험은 몇 가지 항목을 포함한다. 매장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며 생활이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내적인 생명과 외적인 생활로 취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21절상). 이 장 역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과 생활로 취하는 이유가 복음의 진보를 위한 것임을 제시한다(5절). 생명과 생활이신 그리스도의 체험은 복음의 진보로부터 나온다. 복음 안에서, 사도들과의 조화됨 안에서 더 교통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산다. 그리스도를 살기 위한 요소는 단체적인 방식으로 수행되는 복음의 진보이다.

어떤 이들은 복음 전파를 그리스도의 체험과 분리시킨다. 이것은 잘못된 관념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복음의 진보의 요소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요소가 없다면 그리스도를 사는 것에 대한 우리의 말은 헛된 것이다. 바울과 빌립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그들의 내적인 생명과 외적인 생활로 취했다. 그들이 모두 동역하는 복음의 교통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도는 복음의 진보를 위한 부담이 있었으며, 빌립보 인들은 사도와의 조화 안에 있었다. 바울과 빌립보 인들은 복음의 진보 안에서 기뻐했다.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그들의 내적인 생명과 외적인 생활로 누렸다. 빌립보서 1장은 요소뿐만 아니라 결과도 제시한다. 요소는 사도와 함께하는 복음의 진보이며, 결과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우리의 내적인 생명과 외적인 생활로 체험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갈 때 당신은 교리적인 방법이 아닌 매우 실제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누린다...더욱이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누릴수록 우리는 더 복음의 진보에 참여한다. 그러므로 복음의 진보는 또한 우리의 그리스도의 누림의 결과이다. (*생명의 체험과 성장 81-83쪽*)

다른 이들을 먹이는 것은 우리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게 함

이러한 먹임의 문제는 다만 가르침의 문제가 아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성숙에 이르도록 자라기 원한다면 우리 모두는 반드시 영적 자녀들 몇몇을 취하여 항상 그들을 먹이는 공과를 배워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가운데 참된 성장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영적 자녀들을 돌봄에 의한 증가도 없이 매년 이곳에서 그저 모이기만 해서는 안 된다. 교회의 증가는 '염소 새끼들'을 돌보는 방식 안에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올바르며 균형잡히게 될 것이며 이것이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다.

지난 며칠 동안 나는 나의 영을 훈련하여 이 메시지들 가운데서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주님께 구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해답은 이것이었다. "그들에게 영적 자녀들을 가지라고 말하라. 그러면 그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바로 그들이 영적 자녀들을 갖도록 돕는 것이다. 그런 후에야 그들은 공과를 배울 것이고 많은 부정적인 것들을 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나라의 어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아이들이 말썽을 부리고 시끄럽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지역에서 살지 선택하려 할 때 어린이들이 없는 지역을 선택하지 말라. 어린이가 있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루기가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다. 그들은 종종 여러분이 피아노를 너무 크게 친다거나 라디오 소리가 너무 크다고 불평하러 온다. 나는 차라리 아이들이 많은 사람들 옆에 살고 싶다. 그러면 그들은 피아노를 칠 수 있고 나는 찬송을 부를 수 있다. 그들도 뛰어다닐 수 있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며 누구도 불평하지 않을 것이다. 형제들과 자매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바로 그들이 영적 자녀들을 갖도록 돕는 것이다. 주님을 추구하지만 다른 이들을 먹이지 않는 이들은 모두 문제를 일으키는 이들이다. 냉담한 사람은 교회가 쉽게 다룰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먹이지 않고 혼자 추구만 하는 사람은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길은 바로 영적 자녀들을 갖는 것이다. 그럴 때 그들은 그들의 현주소를 알게 되고 자기 책임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더욱이 그들은 생명의 참된 성장과 생명의 체험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생명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파함, 영문판 162-163쪽*)